

# “깨진 거울·찌그러진 자동차 범퍼... 기능 잃은 폐기물들이 나에겐 미술 도구”



안젤름 라일리의 대표작인 포일 페인팅 '무제'. 알루미늄 박을 주름 잡아 형광색의 대형 아크릴 케이스 안에 넣었다.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아크릴 유리, 252×201×28 cm, 2013, © Matthias Kolb

독작가 안젤름 라일리  
이달 말까지 국내서 개인전  
알루미늄 박 마구 구긴  
'포일 페인팅' 도 선배

녹슨 철망, 깨진 거울, 양철 슬레이트, 폐 형광등, 자동차 범퍼.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 앞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 누군가는 고철 시세를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지구 환경에 미칠 해악을 우려할 것이다. 독일 작가 안젤름 라일리(사진)에게 폐기물은 회화의 도구다. 그가 폐기물을 가져다가 쌓아서 만든 풍경은 아름답고 을씨년스러운 추상화다.

1970년 독일 튀빙겐에서 태어난 라일

리는 오랫동안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 공업용 부품, 차량 폐자재, 건축 자재들에 천착해 왔다. 회화를 전공했음에도 “나는 하얀 캔버스를 놓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작업은 사물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가 관심을 가지는 사물은 대부분 폐기물인데, 기능을 잃고 버려진 그것들을 작가는 작업실로 가져와 하나하나 쌓는다. 완성된(?) 쓰레기 더미는 일차적으로는 소비 사회에 경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겠지만, 작가의 용의주도한 배치는 예외 없이 이를 미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폐자재 위에 비춘 스포트라이트와 여기저기 놓아 둔 네온관, 라일리의 쓰레기를 동네 고철 가게의 그것이 아닌 세기말을 주제로 한 영화의 배경으로 바꿔 놓는다. 사물을 물감 삼아 그린 일종의

음산한 풍경화인 셈이다.

독일 주류 미술계와 구분되는 행보로 주목 받고 있는 라일리가 28일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 'What about love' 를 위해 서울에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폐기물 설치 작업을 비롯해 작가의 대표적인 '포일 페인팅' 도 선보인다. 포일 페인팅은 알루미늄 박을 이리저리 구겨 세로 2.5m, 가로 2m짜리 형광색 쇼 케이스 안에 집어 넣은 작품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바스락 소리가 날 것 같은 알루미늄 포일은 마치 선물 포장지 같아 그 안에서 나오는 물건은



어떤 욕구라도 단박에 채워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관객이 얻을 수 있는 건 재료의 반짝임뿐이고 그 이면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일리의 작품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의 작품에서 흥미로운 형태로 발견되는 지난 세기의 흔적 때문이다. 그의 작업에는 기성품을 작품으로 '우기는' 파운드 오브젝트(Found Object: 발견된 사물), 원색의 명시적 효과가 특징인 팝아트, 지난 세기의 거대 흐름인 미니멀리즘

등 다양한 개념과 기법이 녹아 있다. 그러나 기성품을 수집하되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림의 재료처럼 이용하는 것 등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진상 계원조형예술대 교수는 서구 미술계에서 2000년대 개념미술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더니즘으로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교수들에게 배운 작가들은 그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모더니즘의 언어와 재료”라며 “위 세대를 부인하면서 모더니즘과도 같지 않다는 점에서 라일리의 작업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국제갤러리 3관에서 열린다. 황수현기자